

경력 단절 여성 10명 중 4명 '육아 때문'



▲ 사진=타운뉴스DB

올해 상반기 경력 단절 여성이 145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상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832만3,000명 중 비취업 여성은 32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단절여성 144만8,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만7,000명

(-3.8%) 감소했다. 기혼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17.6%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자연적인 인구 감소의 영향이 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경력 단절 사유로 '육아'를 꼽은 사람은 62만6,000명(43.2%)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결혼이 39만6,000명(27.4%), 임신 및 출산이 32만 명(22.1%)이었다. 자녀 교육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도 5만5,000명(3.8%)으로 집계됐는데 경력 단절 사유 가운데 자녀교육이 차지한 비중이 가족 돌봄(3.4%)을 넘어선 것은 2016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경력단절여성 65만5,000명(4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57만9,000명(40.0%)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기혼 여성 및 비취업 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층 역시 30대였다. 30대 기혼 여성 가운데 28.5%는 경력 단절 여성이었고 30대 비취업 여성으로 범위를 좁히면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은 62.5%에 달했다.

초과 세수로 자영업자에 초저금리 대출

코로나19 사태로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역대 최저 금리(1.0%) 대출을 지원한다.

지난 2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방안'을 포함한 총 12조7,000억 원 규모의 민생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민생 대책의 핵심은 총 9조4,000억 원에 이르는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안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인원·시설 이용 제한'이 적용됐던 업종에 대해 금리 1.0%, 2,000만 원 한도의 '일상 회복 특별 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

는 셈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한 등 조치로 사실상 영업 피해를 입었지만, 손실 보상 지급 대상이 '영업 금지·영업 시간 제한' 적용 여부로만 갈리면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외에 정부는 구직 급여 지원 제정 1조3,000억 원을 보강하는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 등 물가 안정 대책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민생 지원 대책에는 연말까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19조 원의 초과 세수 중 교부금(40%·7조6,000억 원)을 제외한 재원 중 5조3,000억 원이 투입됐다. 또 2조5,000억 원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미 수출 비중 17년 만에 15% 돌파



▲ 사진=타운뉴스DB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7년 만에 15%를 넘어섰다. 한국 경제에서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누적 대미 수출액을 직전 5년(2012~2016년)과 비교한 결과 17.9% 증가했으나 대중국 수출은 7.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액은 1~10월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수출액을 추정했다.

특히 올해 대미 수출액은 작년 대비 31.0% 증가해 전체 수출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16.9%) 이후 최고치인 15.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대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6.8%까지 상승한 뒤 하락해 올해는 고점 대비 1.6%포인트(p) 낮은 25.2%를 기록했다.

미국은 2017년부터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수출입은행·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한국의 누적 대미 직접투자액은 2013~2016년 대비 75.1% 증가한 반면 대중 직접투자자는 23.5%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로 반도체와 전산 기록매체, 이차전지 등의 수출이 최근 2년새 50% 이상 늘며 증가세를 보였다.

전경련은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한국의 누적 대미 직접투자자는 직전 4년(2013~2016년) 대비 75.1% 증가했고 말했다. 대미 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 잔액 기준으로 2017년 이후 미국은 한국의 1위 투자국으로 떠올랐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